

아이들의 따뜻한 하모니를 만드는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 마상학, 최지은 선생님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개구쟁이같이 떠들던 아이들이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눈빛이 달라진다. 자기 몸 크기만 한 악기를 들고 지휘봉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다. 창단 18년째를 맞이한 신일중학교의 자랑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의 모습이다. 진한 사랑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마상학, 최지은 선생님을 소개한다.

글 서충식 사진 심민규

Sinil wind Orchestra

지금까지 각종 경연대회에서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신일중학교의 자랑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신일중학교에는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가 있다. 관악기는 날숨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바람을 뜻하는 윈드(wind)를 붙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2002년 약 45명의 학생 단원으로 창단해 현재는 약 90명까지 규모를 키웠고 창단 다음 해부터 각종 대회에 입상하며 신일중학교의 자랑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도를 맡은 마상학 선생님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2018년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대상, 제16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전체 대상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각종 경연대회에서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마상학 선생님은 창단부터 지난해까지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를 맡은 뒤 최지은 선생님에게 지휘를 넘겼다. 인터뷰를 위해 오랜만에 연습실에 방문한 마상학 선생님은 “왜 아침 연습에 나오지 않았느냐”, “악기 손봐줄 테니 가져와라” 등 애정 섞인 잔소리와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을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연습을 통해 실력을 갈고닦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마상학 선생님은 “악기는 아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존재일 뿐이고, 모두가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라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수줍게 이야기했다.

돌고 도는 사랑의 가르침



올해부터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를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게 된 최지은 선생님은 마상학 선생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2002년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당시 첫 입단 학생이 최지은 선생님이 마상학 선생님의 첫 번째 오케스트라 제자인 셈이다. 그 제자가 선생님이 돼서 스승의 뒤를 이어 본인이 졸업한 신일중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맡게 된 것이다. 최지은 선생님은 2002년 당시 마상학 선생님을 “정말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생님이셨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분”이라고 말했다.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전국대회 대상 수상으로 인해 올해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대신 각종 초청공연을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해 아름다운 소리로 무대를 장식했고 최근에는 지난해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 대상을 기념하는 공연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전체 대상을 기념하는 공연과 고양학생 1천인 음악회, 정기연주회 등을 앞둔 상태다. 최지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통해 기억에 남는 중학교 생활을 남겨주고 싶다. 선생님이자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의 선배로서 아이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는 신일중학교와 고양시를 빛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공연에 들러 따뜻한 감성과 감동의 울림을 고스란히 전해 받고 오는 것은 어떨까. 🎵



2

정말 호랑이같이 무서운 선생님이셨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분이시다

- 1 (좌)마상학 선생님 (우)최지은 선생님
- 2 학생 단원들의 롤링 페이퍼
- 3 신일 윈드 오케스트라 연습
- 4 2018 고양학생 1천인 음악회

